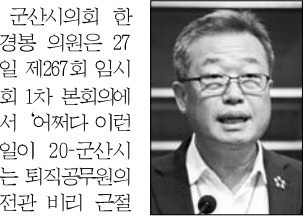


“퇴직공무원 전관 비리 근절”

한경봉 군산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저차다 이런 일이 20-군산시는 퇴직공무원의 전관 비리 근절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퇴직공직자 스스로 전관 비리를 방지할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권익위원회의 군산시 청렴 컨설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1위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또한 2022년 군산시 반부패 역량진단결과(내부청렴도 6.40/전체평균 7.57)에 따르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7.07점/전체평균 7.97)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장 및 부서장이 선정 절차에 많은 영향력 행사 이유로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군산시민발 전주시회사 대표이사 임명 단계에서도 나타나 바 있다”며 “현 대표이사는 군산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퇴직 직후 사흘 만에 취업한 회사는 건설계열 신생 업체였는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니나 2020년 7월 등기 이후 5월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무려 68건, 총액 12억 6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해당 계약 담당자의 82.6%(33명)가 토목직(토목직류)이며 전체 토목직 인원의 30.27%에 해당하며 7~9

급 공무원으로 대표이사가 동일 직렬 최고 직급 관리자였는데 과연 역량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며 “현 대표이사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이 모두 책임자였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이 회사의 등기상 소재지 건물에는 우편함도 간판도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유령회사”며 “대표이사는 타 지역 사람인데, 군산시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임종만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물어주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기가 되어있는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가 연고 특혜 및 전관 비리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위협하여 젊은 공무원 공직 이탈 사태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2024년 군산시는 ‘군산시 반부패·청렴계획’에서 낮은 청렴도 원인을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유지,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군산시는 조속히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에 민연되어 당연시된 풍조를 개선하도록 과감한 개혁을 통해 ‘청렴한 군산시’ 이미지를 획득하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 북페어 2024’,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완료

근대역사와 문화의 도시 군산에서 처음 열리는 ‘군산북페어 2024’가 31일 개최를 앞두고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을 잇달아 소개하고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과·군산시 시립도서관관과·소통협력센터 군산이 공동 주최하고, 군산의 13개 서점 연합체가 함께하는 북페어는 독서 덕후들의 심금을 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독서가치를 유혹하고 있다.

먼저 독립서점 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도시가 책을 판다(Books For Sale)’ 프로그램에선 한국과 일본의 서점 대표들이 참여하는 주제 토크가 이어진다.

먼저 8월 31일 ‘서점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나?’는 다플라, 팽스북스, 봄날의 책방을 운영하는 독립서점 대표들이 서점의 역할과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9월 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12년 넘게 독립서점 B&B를 운영하는 우치무라 산타로 대표가 자신의 경험담과 다양한 나라의 서점계를 답사하며 느꼈던 감정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시



간을 갖는다.

‘도시가 책을 판다(Books For Sale)’가 책을 파는 서점 대표들의 애환을 다룬다면 ‘책을 탐구한다(Sail For Books)’ 프로그램에서는 책을 쓰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솔직과감하게 나누는 시간이다.

황석영 작가와 류보선 평론가의 특별대담 ‘작가와 떠나는 책으로의 항해’에서는 근현대를 관통하며 온몸으로 시대의 항거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가 깊다.

이어 2030세대의 책문화를 이끄는 작가들이 박찬세, 서한나, 조예은은 젊은 세대가 책을 읽고 쓰는 것에서 느끼는 삶의 의미를 자유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산복천, 개선복구 사업 확정

익산시가 지난 7월 수해로 제방이 유실된 산복천 상류구간 정비사업 국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정부 ‘개선복구 사업’으로 사업비 328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 남산면 산복천과 죽청천 합류점부터 상류구간 2.5km를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산면에 위치한 산복천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약 150m가 붕괴했으며, 국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익산시는 단순 기능 복구가 아닌 호우피해 발생 원인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합동조사 시 개선복구 사업에 산복천 제방 정비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산복천이 ‘개선복구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2026년까지 2.5km 하천을 보축 및 축제로 정비하며 교량 4개소도 재가설 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 수해복구 전담대응팀(ITF)을 구성해 사업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무전공 도입한 국립군산대, 성공적인 결과 도출 · 순항

학생 대다수 안정적 진로 · 전공 선택... 특성학과 쓸림없이 7개 특성화대학에 골고루 분포

국립군산대학교가 특화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전공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 대학이 무전공 선발 인원을 확대하면서 특성학과 쓸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자율전공학부를 선제적으로 신설한 국립군산대학교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023학년도에 신설된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정규교과과정 외

에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적성 발견을 최우선에 두고 차별화된 비교과과정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매년 전학과(부)가 참여하는 전공박람회, 비전위크숍, 고품질의 명사초청특강, 사제동행 소통프로그램, 비전기업탐방, 다양한 체험학습 등 재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진로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탐색 및 결정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이러한 노력 결과 2023학년도에 입학한 109명의 학생 중 104명이 성공적으로 전공을 선택했으며, 2024학년도 입학생도 1학기가 지난 지금 72%에 해당하는 62명이 전공을 결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정 분야 특정학과 쓸림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학년도에는 29개 학과(학부)를, 2024학년도에는 25개 학과(학부)를 선택해, 학생들이 선택한 학과(부)가 7개 대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고품질 익산 햇배, 베트남 등 해외 수출길 올라

익산에서 올해 처음 수확된 고품질의 원용배, 화산배가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캐나다, 대만 등에 30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익산 배 146톤 수출로 3억 8000만 원의 농가 수익이 발생했다.

익산 배는 주로 금마면과 남산면에 재배되고 있으며, 7능가 45ha 규모로 연간 1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다. 2009년에 금마면 일대가 수출 배 전문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배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능성 배 봉지 46만 6000매를 지원했으며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재가의료급여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27일 군산시(시장 강일준)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솔한의원(원장 강성용) ·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주) · 열무(대표 박은영) · 락푸드(대표 오윤목) 총 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는 물론 돌봄 식사, 이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솔한의원은 의료 부분 서비스를 전담하면서 대상자 케어플랜 수립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돌봄을 도우며, 열무와 락푸드는 케어플랜에 따라 밀반찬 등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만 65세 이상 스케일링 무료 지원

익산시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치아건강 관리를 돕는다.

익산시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치아가 튼튼해야 음식물을 원활하게 섭취할 수 있고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도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씹는 기능이 좋을수록 근육과 뇌에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보건소는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지원한다. 스케일링은 검진과 상담을 거쳐 이뤄지며,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칫솔질 교육과 불소용액 배부도 진행한다.

65세 이상 익산시민은 구강보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63-859-4891~3)로 예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